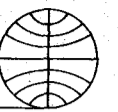


海外情報



Shaw 교수는 지적하기를 『고혈압치료제들이대 사상에 미치는 효과는 이들 약제가 혈압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더중 요할수도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Shaw 교수는 다음과 같 이 요약했다. 『선택적 알 파-1 차단제나 칼슘길 항제, 그리고 ACE억제

제 등을 단독 또는 병 행 사용하여 이들의 혈압 요법에 대한 규모의 연 구들에 의해 이와 같은 사실들은 확연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료가 현실화되기까 지는 모든 고혈압 환자 들은 치료를 시작하기전 과 후 6주 내지 8주 시점에서 혈중지질상태를 측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에 이때 콜레스테롤치가 애초부터 높았다거나 약 물요법으로 인해 상승된 것이 발견된다면 콜레스 테롤치를 감소시키기 위 한 적합한 요법이 따라 야만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었다. 화이자의 스폰서에 의 한 이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William Kannel 교수 (Chief of the Section of Preventi-

상약물학교수인 John S-haw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병리학 연구자료들은최 초의 심근경색 에피소드 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

사율은 감소시키지 못한 다는것은 놀랄만한 사실 이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이노제나 대부분의 베타차단제들이 대사기능에 미치는 부정

HDL 콜레스테롤 상승·혈압정상화시켜

ve Medicine and Epidemiology, 보스턴 대학 메디칼센터, 미국)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성심 질환 (CHD) 을 유발하는 여러 위험인자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들 각종 위험인자들은 고혈압의 치료여부를 판단하거나 적합한 치료를 하는데, 그리고 고혈압 치료의 효과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함께 고려해줘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 윌리엄교수는 덧붙여 『고혈압환자로서 관상동맥성심질환 (CHD) 에 대한 추가 위험을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든다면, HDL 콜레스테롤치에 비해 전체 콜레스테롤치가 증가되어 있는환자, ECG 검사소견이 비정상인환자, 제한된 당내성을 가진 환자, 그리고 흡연등을 들수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인 치아자이드 이노제나 베타차단제들이 당내성, 혈중지질및 노산치 등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런 약제들은 혈압을 조절하는 반면에 관상동맥성심질환 (CHD) 의 위험도를 실제로는 악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심포지움에서 이러한 경고에 대해 지지했던 다른 연사들은 대규모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많은 고혈압 치료제 들은 CHD 의 발생률을감소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의

에 고혈압은 모든 관련 위험요소들의 25%이상이 될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대한 규모의 시험결과들이 혈압조절의 결과로서 뇌졸중의 이환율이나 치사율은 약 2분의1로 감소시킬수있었던데 반해 관상동맥성 심질환의 이환율이나 치

용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으며, 이들이 지질대사 (예를들면, Triglyceride 및 총 콜레스테롤양을상 승시키거나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시키는 작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CHD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실패의 원인 임이 알려졌다.

癌 등 発病 규명에 도움

日구마모토大學의학부 研究팀 臨床실험결과보고

보통 실험쥐의 수정란에 인간의 유전자 또는 가공한 유전자를 침입시켜 탄생시켜주는 주입시킴쥐 (트랜스제너마우스) 가 생명공학실험실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日本에서 생명공학의 핵심인 유전자조작 기술로 탄생에 성공한 유전자이식실험쥐는 인간의 癌, 면역기능, 유전병등의 발병구조를 해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日本의 요미우리 (讀賣) 신문은 소개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日本 가와사키 (川崎) 시에 있는 日本 실험동물중앙연구소가 쥐의 성장호르몬 유전자를 주입시켜 만든 유전자이식실험쥐는 보통 쥐와 외형은 거의 같으나 체중은 2배나 더나간다는것.

유전자이식마우스는 우선 보통 실험쥐의 수정란에 실험유전자를 주입

成長호르몬遺傳子를 주입시켜 면역기능 유전병관련 研究도

한후 이를 다른 암쥐에 이식하면 태어나게 된다.

유전자 이식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이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癌의 발병연구.

현재 확인된 癌의 유전자는 약40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유전자 1개만 있어도 癌이 생기는지 혹은 2개 이상이 동시에 작용해야 생기는지 또 癌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癌의 발생부위가 다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암환자를 조사해도 해답이 안나오고 있으며 실험관내에서의 실험으로는 더구나 검증이 어렵다. 日本 理化學연구소산하 연구팀은 癌환자로 부터 추출한 癌유전자 라스 (ras) 와 미 (myc) 그

리고 암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암유전자 T를 각각 쥐의 수정란에 이식, 유전자이식마우스를 만들었다. 그 결과 라스를 이식한 마우스에서는 폐암이 발병했고 미과 T를 이식한 쥐는 임파腫, 뇌종양이 각각 발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라스, 미는 정상조직에서도 變現하는 반면 T는 암조직에서만 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만 갖고유추할 경우 △암유전자에 는 어느정도 조직의 특이성이 있다. △T는 단독으로 암을 유발시킬수 있지만 라스와 미는 다른 알파의 요소가 작용해야 암을 일으킨다고생각할 수 있다.

구마모토 (熊本) 대학의 학부연구팀은 유전자이식

마우스를 이용, 「인간질 환모델동물」을 만들어 인간의 질환원인을 찾는연구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 연구팀은 혈액중의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발생하는 「아미로이드 폴리 뉴로파시」라는 유전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전자이식 마우스는 가속과 물고기의 개량에도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앞으로는 동물의 행동, 기억의 연구등에 응용하는것도 검토되고있다. 예를들어 기억력과 관계가 깊은 호르몬을 수정란에 대량으로 주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것은 단순한 흥미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지능개발 또는 지진치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팅소신 독사소신 관상동맥성심疾患에 효과

亞·太 심장학회 심포지움서報告

【Auckland, New Zealand 報】 관상동맥성심질환 (CHD) 의 이환율이나 이로인한 사망률을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혈압 한가지에만 초점을맞춰 치료하는 것보다는각종의 CHD 위험인자들을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할 필요가있다. 이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심장학회 (IX-APC) 와 관련하여 개최된 첫날인 2월11일 있었던 심포지움 『Selective Alpha Inhibition and Coronary Heart Disease Risk Factor Management』에서 시종일관 나타난 일치된 의견

어른을 공경하여 효도를 실천하자.

뇌졸중
중풍
만신불수

- 만성 두통
- 지각장애
- 현기증
- 노화증후군
- 연탄가스중독 후유증 (언어장애·수전증·기억력장애)

■ 뇌 산소요구량
뇌 100g당
3.3~3.4cc/min

뇌에 맑은 산소를!
BELGIUM UCB 뇌기능 대사촉진제
뉴트로필
R Nootropil 2.4g/day p.o for 6 weeks

5大 藥理作用

1. 물질대사 촉진작용
산소 및 포도당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 촉진을 시켜 줍니다. (Rouzeffeur B. et al FRANCE)
2. 신경전달 촉진작용
유발 전위에 작용하여 반구정보를 전달합니다. (HERRSCHARFT H. et al GERMANY)
3. 혈소판의 과잉 억제작용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유착을 방지하여 제증상을 개선하여 줍니다. (Barnhart et al. U.S.A)
4. 적혈구 변형 유동력 증가작용
적혈구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말초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SKondia V. et al BELGIUM)
5. 저산소시 뇌기능 보호작용
말초혈행을 정상화시켜 다발성 기질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C. Giurgena and Coli. BELGIUM)

■ 포장 ■ 주사: 1g 12앰플·정제: 800mg 100정
간질: 400mg 100캡슐/15,000원